

#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고찰\*

양용준\*\*  
yongjoon@jejuu.ac.kr

## <目次>

- |                      |                                 |
|----------------------|---------------------------------|
| 1. 서론                | 3.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과정 비교            |
| 2.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환경 비교 | 3.1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비교분석           |
| 2.1 일본의 영어교육         | 3.2 TOEFL 성적을 통해 본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
| 2.2 한국의 영어교육         | 4. 결론                           |
| 2.3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비교  |                                 |

主 題 語: 영어교육(English education), 글로벌화(Globalization), 영어 교과서(English textbook), 교육환경(Educational situation), 교육과정(Education curriculum)

## 1. 서론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sup>1)</sup> 모든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영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일본, 한국, 중국에서도 영어에 대한 열풍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 보다 잘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 본 논문은 “한국일본근대화학회 제32회 국제학술대회(2015.10.30-11.2, 일본 규슈대학 이토캠퍼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 1) Graddol(1997)은 21세기 초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감안하여 ‘중력의 중심’을 EFL 환경의 영어화자들에서 L2 영어화자로 넘어감으로, L1 영어화자들의 수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어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영어화자들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 2) Kachru 교수(1986, 1992)는 다음과 같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 a. inner circle(내부집단):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통적인 원조 영어국가
  - b. outer circle(외부집단): 인도, 필리핀, 케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지배 국가
  - c. expanding circle(확장집단): 영어를 외국어로 지정하여 공교육을 통하여 교육시키는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중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같고, 또한 중국어에는 사성이 있어서 영어의 억양을 흉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한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과 인접국가인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어와 한국어가 어순이 비슷하다고 한다. 중국어나 영어와는 어순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이 영어를 습득하는데 중국인보다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어순이 다르고 또 동아시아권에 있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인 일본과 한국에서의 영어 습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영어교육 측면으로 두 나라의 영어교육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제3장에서는 대학교에서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두 나라의 환경 중에서도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제주의 영어교육을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두 지역은 섬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지만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은 곳이다. 이 두 지역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세계화에 동참하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 비교

일본과 한국에서 영어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나라의 영어교육이 나아가고 추구해야 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어교육과 한국의 영어교육을 각각 살펴보고 또한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언어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1 일본의 영어교육

일본의 학제는 6-3-3-4의 학제로 소학교(초등학교)(6)와 중학교(3), 고등학교(3), 대학교(4)로 이루어져 있고, 소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 부분은 한국의 기본학제와 동일하다. 물론,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영향으로 지금 학제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교육행정기관은 문부과학성의 지휘 감독 하에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교육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고 주관하여 일을 한다.

일본의 영어교육은 비교적 읽기와 문법 지식을 터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는 4기능이라 하는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을 골고루 터득해야 하는 언어이므로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일본의 영어교육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사교육의 열풍도 젊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불고 있다.

일본은 영어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최근에 변화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영어가 국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한국의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크게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에서 조기영어교육이 본격적으로 고려된 것은 1991년 12월, 「임시 행정개혁 추진 심의회」가 특별활동에 영어회화를 추가하는 것을 공식 제안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이홍수, 2011:336)

일본의 소학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국제 의사소통의 기초 확립과 세계인 육성으로 대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외국어(영어)를 통하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태도를 육성하며 듣기와 말하기 등의 실제 의사소통능력의 기초를 함양한다는 철학을 가진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외국어를 통하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하며 정보를 이해하고 대화자의 의중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 등을 표현 할 수 있는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교육적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과정에서 영어교과의 수업시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

<표 1> 일본교육과정 속의 영어교과 수업시수(2011)

구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계 시수	
	소3	소4	소5	소6	소계	중1	중2	중3	소계	고1	고2	고3	소계		
2011	연간	15	15	35	35	100	105	105	105	315	105	105	105	315	730
	주당	1	1	2	2		3	3	3		3	3	3		
	시간 (분)	45	45	45	45		50	50	50		50	50	50		
	시간 편성	재량활동 시간활용		정규시간			정규시간			정규시간					

위 <표 1>에 의하면, 2011년부터 소학교 5-6학년 영어가 정규과목으로 연간 35시간(1시간은 45분), 3-4학년은 종합학습시간(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서 연간 15시간 정도의 수업을 한다.3)

3)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소학교는 1시간을 45분으로, 중학교부터는 50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중학교의 경우는 1~3학년까지 각각 연간 105시간(1시간은 50분), 고등학교는 1~3학년까지 각각 연간 105시간을 수업하고 있다. 원어민의 총 수업 시간의 20~25%를 담당하며 영어수업은 영어로 실시하고 있다. 소학교와 중학교는 일반영어교과로 가르치지만 고등학교 영어의 경우, 1학년은 보통영어교육 교과군(영어 I, 영어II, 말하기 I, 말하기 II, 읽기, 쓰기)과 2~3학년은 전문영어교육 교과군(종합영어, 영어이해, 영어표현, 다문화 이해, 생활영어, 시사영어, 컴퓨터/어학실습)으로 구분하고 선택교과로 가르친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도 영어교과를 다양하게 구분해서 가르치는 학교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은 영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영어교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능력과 교수학습 방법을 갖춘 자로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일본에서도 영어교육에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한국의 영어교육

한국의 학제도 일본의 학제와 마찬가지로 6-3-3-4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실시하는 한국의 영어교육의 성격은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개별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의사소통중심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고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능력의 바탕이 되는 언어기능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터득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고,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활영어에 대한 이해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또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의 영어교육은 1945년 해방 이후 교과교수요목을 최초로 공표한 이래 2015년까지 9차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인 경우 3~4학년은 136시간(1시간은 40분)으로 240개의 단어, 5~6학년은 204시간으로 260개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중학교에서는 340시간(1시간은 45분)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다루는 어휘보다 훨씬 많은

---

초등학교는 1시간을 40분, 중학교 45분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은 50분으로 운영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모두 정규과목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소학교 3~4학년은 정규과목이 아닌 재량활동시간에 편성하여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차이점이다.

단어인 750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인 경우는 영어교과 군으로 필수과목 10개와 5개의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408시간(1시간은 50분)으로 단어 수는 1750~2250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의 영어교육은 초등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의 3개 학년군 설정 및 필수 학습내용 선정을 통한 위계성과 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적인 언어재료(음성, 문자언어, 어휘, 성취기준 등)와 의사소통기능개발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고,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배양한 영어능력을 기반으로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기본과정(1과목), 일반과정(8과목), 및 심화과정(6과목)으로 나누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과정과목은 중학교까지의 공통교육과정에서 누적된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과목으로, 2011 개정교육과정에서 영어와 수학교과에 도입하였다. 일반과정(8과목)은 중학교에서 배양한 영어능력을 기반으로 실용영어능력 및 기초학술영어능력 개발을 위한 과목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등과 연계하여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심화과정(6과목)은 전문계열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 등)수준의 심화된 영어능력 개발을 위한 과목으로 기존 전문교과에 해당하는데 일반계고 학생들도 이수가 가능하다.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초등영어 수업시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표 2>는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수업시수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 2> 제7차 및 2009 개정교육과정 수업시수(교과, 2009.12.17)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계 시수	
	초3	초4	초5	초6	소계	중1	중2	중3	소계	고1	고2	고3	소계		
7차	연간	34	34	68	68	204	102	102	136	340	136	136	136	408	952
	주당	1	1	2	2		3	3	4		4	4	4		
2009 개정	연간	68	68	102	102	304	102	102	136	340	136	136	136	408	1088
	주당	2	2	3	3		3	3	4						

위 <표 2>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연간 영어수업시수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교육은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참고로 하여 습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보다 많은 시간을 영어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된다.

둘째,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영어회화수업을 담당할 내국인 강사를 2009년 말까지 선발하여 2010년 각 급 학교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국인 영어교사의 영어수업 지원을 위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2010년 3월 8,546 명을 채용하여 각 급 학교에 배치하였다. 꾸준히 많은 수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영어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바람직한 정책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시대에서 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영어에 대해서는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다음 <표 3>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표 3>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교과부, 2016년 3월 기준)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원	59	60	856	274	176	146	139	189	283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2016
인원	671	1,178	2,622	3,808	5,553	7,997	8,546		9,786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국제화 시대에 맞게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능력 계발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체험교실 및 영어전용교실 구축을 들 수 있다.

교육부는 해외어학연수 증가에 따른 대안으로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초등학교) 및 영어전용교실(중, 고등학교)을 구축하였다.

위 <표 3>을 살펴보면 1960년대 초 평화봉사단의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교육을 잠시 담당하다가 그들의 본국으로 복귀한 후에 한 동안 학교 현장에는 없었던 원어민교사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교육 현장에 다시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었다.

1990년대는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시기였으며, 대중매체의 발달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준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기 위한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는 우리나라의 오늘날 영어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일조를 담당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최근(2016)에 경제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전국 모든 일선학교에서는 순차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많은 학교에는 native speaker인 영어회화를 담당하는 원어민교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2.3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언어재료 비교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의 목표는 거의 동일하다. 의사소통중심의 교육으로 또한 바뀌고 있는 것도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문법을 중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문법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일본에 비하면 생활영어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일본은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법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 영어를 좀 멀리 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민들 전체도 영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일례로 일본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에 길을 잃었을 경우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서 길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영어교육에서 회화중심으로 하다 보니 최근에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나라의 영어교육을 하는 재료, 즉, 교과서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 역사, 문화, 혈연 등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의 교육체제는 한국 교육체제의 바탕이 되었고, 일본의 추구하는 대동아공영권 이념에 따라 학습내용도 한국에 적용된 것이 많아 한국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대륙과 섬나라 사이의 반도에서 생존해 온 한국인들과 화산 폭발, 지진, 바다에서의 재해 등 예고 없는 자연의 위협을 안고 사는 섬에서 생존해 온 일본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영어가 학습되거나 사용되는 환경은 아주 다양하다.

정고운(2013)에 의하면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언어재료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에서 다루는 언어재료를 어느 한 부분에 국한해서 다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한국에서 영어교육 언어재료로 다루는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다루는 언어재료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4)

4)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과서에 대해서 김희정(2006), 백미연(2014), 정형륜(2005), 허숙정(2015) 등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재료를 살펴보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교육당국

<표 4>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언어재료 비교

일본의 영어교육 언어재료	한국의 영어교육 언어재료
a. 발음과 철자를 비교 b. 문법교육은 의사소통과 연관시켜 언어활동을 중심으로 지도 c. 문법 사항을 용법이나 용어 중심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지도 d. 영어의 어순과 수식 관계를 일본어의 어순과 비교하고 차이를 지도 e. 영어의 특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문법사항을 하나로 정리하고 효과적인 지도 f. 학습 단계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계적으로 철저히 지도	a.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고려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b.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c. 영어권과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 d. 창의성과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e.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 f. 주제, 상황, 과업을 고려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철저히 지도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은 추세가 문자중심 즉, 읽기와 쓰기중심에서 의사소통중심의 생활영어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한국의 교과서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단원의 수는 평균 10개로 비슷하지만, 한국의 경우가 페이지 수가 비교적 많다. 일본의 교과서는 읽기와 문법지식을 터득하는 쪽에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영어의 4기능을 골고루 다루고 터득하게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은 비교적 한국보다 쉬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저학년에서 고학력으로 갈수록 난이도는 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 난이도가 일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학생’을 의미하는 은어)가 생겨나고 일본은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영향으로 영포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셋째, 소재와 문화의 경우, 한국의 경우는 본국과 공통적 그리고 외국문화(미국 포함) 배경이 비슷한 비율로 다루고, 일본의 경우 소재와 내용은 본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의사소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다양한 의사소통기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 4>는 이들과 교육당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를 토대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임을 밝힌다.



다섯째, 한국은 언어형식을 제시 할 때 어떠한 문법적 설명도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예제문을 통해서만 언어형식을 익히도록 하는데 비해 일본은 언어형식을 제시 할 때 문법용어도 그대로 쓰면서 명시적 문법 설명을 많이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3>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주 핵심적인 차이라 하겠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영어 교과서는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이고 한국의 영어교과서는 원색으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다양한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은 생동감 있고 활발하게 구성된 시각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류의 교과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물론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저학년일수록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과 한국의 영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영어 교과서<sup>5)</sup>를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지양해야 할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교과서는 변화가 없는 일관적인 교과서 구성보다는 단원마다 추가활동을 넣어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단원별 학습 분량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법 보다는 언어의 4가지 영역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영어 교과서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 통합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영어 교과서의 쓰기영역은 빈칸 채우기 (fill-in-the-blanks)와 같은 단순한 과업이 아닌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 작문 과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어 교과서는 본국과 미국을 넘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소재를 다룰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원별 Reading 파트는 다양한 수준의 독해를 다루지만 난이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고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단원들을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배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어 교과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법적 구조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문법 용어와 설명 없이 다양한 예제문을 통해서만 언어 형식을 익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의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교과서 내용의 질적 향상과 함께 양국 학습자들의 영어 실력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의 영어교과서는 오늘날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중학교 영어교과서「Middle School English 1, 2, 3」을 일본의 영어교과서는 산세이도 출판사에서 출판한「New Crown English Series 1, 2, 3」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 3.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비교 분석

#### 3.1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비교 분석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은 너무나 유사한 환경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제주와 비슷한 일본의 오키나와대학교 인문학부의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 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양 대학의 영어교육 환경 등을 살펴보고 또한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주대학교와 오키나와대학교는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주 유사한 대학교이다. 제주 대학교는 1948년 제주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4.3이라는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섬에 위치한 대학교이다. 반면에 오키나와대학교는 고대왕국에서 일본으로 복속되던 시기는 접어두더라도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이다.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두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섬의 아픈 역사적인 현실까지도 유사하기 때문에 두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현실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대학의 교수 및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제주대학교와 오키나와대학교 비교

학교		제주대학교	오키나와대학교	
항목				
대학		인문대학	인문학부	
학과		8	1 // 4	
		0.국어국문학과 0.영어영문학과 0.일어일본학과 0.중어중문학과 0.독일학과 0.사회학과 0.사학과 0.철학과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과	0. 영어 커뮤니케이션 코스 0. 중국어 커뮤니케이션 코스 0.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코스 0. 국제교류 코스
홈페이지		<a href="http://english.jejunu.ac.kr">http://english.jejunu.ac.kr</a>	<a href="http://www.okinawa-u.ac.jp">http://www.okinawa-u.ac.jp</a>	
교수 수		6	5/12	
교수전공		문학 4 // 어학 2	문학 2 // 어학 6 // 기타 4	
교수 학위	국내	5	10	
	국외	1	2	

학교		제주대학교	오키나와대학교	
항목				
교육과정	교양	영어회화 I, II 영어읽기 I, II 영어쓰기 I, II 토익영어, 영어구문의 기초, 영어어법산책, 영미사회와 문화의 이해	공통 과목	<1년차> Basic English I, 情報 I, 인어학 입문, 중국어회화 I <2년차> Oral English III, 日本語 III, 중국어중급 I, 환경개론
			기초 과목	<1년차> 영어 I <2년차> 영어II
			기본 과목	<1년차> 영어시스템 I · II <2년차> 국제교류개설 I · II
	전공	<1학년> 교양 only <2학년> 영문학 입문, 19세기 영미시, 영미문학 강독, 영문학사, 영어학입문, 대학영어회 화(I) // 시사영어, 영미단 편소설, 영미회곡, 미국문 학사, 영어발음의 원리, Academic Writing( I ), Communicative English Grammar <3학년> 20세기 영미시, 미국의 사 회와 문화, 셰익스피어, 영국소설, 영어음운의 원 리, 영어구조의 원리, 대 학영어회화(II) // 고전영 시, 미국소설, 영국의 사 회와 문화, 영어사, 영어교 과교육론, 언어와 사회, Academic Writing(II) <4학년> 영어교과교재연구 및 지 도법, 영문학비평의 기초, 대학영어회화(III),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영산문 // 퍼블 릭스피킹, 영어교과논리 및논술, 영미소설의 기초, Academic Writing(III)	연습	<1년차> 미개설 <2년차> 기초연습 I · II <3년차> 전문연습 A·B <4년차> 전문연습 A·B
			영어 커뮤니케이션 코스	
			전문 과목	<1년차> 영어습득법 <2년차> 영어세미나 A·B, 해외세미나 I <3년차> Project English, Advanced English Skills, 영어학 개론 I · II, 영어음성학 I · II, 영국문학 I · II, 영어번역기법 <4년차> 영어통역기법, 시사영어 I · II, 졸업논문
졸업후 진로		학자,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국 제통역가이드, 언론사 해외특파 원, 기자, 아나운서, 출판사 편집 인, 관공서나 기업체, 금융계, 창 작, 항공사, 등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무역회사, 관광산업 (호텔리어, 여행사 대표), 객실승무원, 매스컴 (방송국, 라디오, 신문사), 등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에는 8개 학과, 즉,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일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철학과로 나누어져 있다. 인문학의 핵심인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인간중심과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을 주로 하는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오키나와대학교의 경우는 인문학부내에 4개의 핵심전공을 두고 있다. 즉,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 중국어커뮤니케이션 코스, 일본어커뮤니케이션 코스, 국제교류 코스로 4개 코스를 두고 있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의 경우는 각 전공별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자체적으로 교양과 핵심전공을 적절하게 커리큘럼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대학교 인문학부의 경우는 4개 코스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글로벌시대에 맞춘 시대적인 현상을 암시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본 논문의 주제가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현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와 오키나와대학교 인문학부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내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는 총 7명으로 문학전공 4명, 어학전공 2명과 초빙교수 1명이다. 반면에 오키나와대학교의 경우는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에 총 12명의 교수가 있는데 이 중 5명이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에 재직하고 있다. 전공별로 보면, 문학 2명, 어학 6명, 그리고 기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키나와대학교의 인문학부는 전통적인 문사철로 대변되는 학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다.

교육과정을 보면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인 경우는 교양과 전공과목으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문사철에 적합한 커리큘럼으로 편성하여 심도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오키나와대학교의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인 경우는 교육과정을 보면 복잡하고 또한 깊이가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개론적인 수준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철저한 실용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려는 차원의 교육과정인 것 같다.

그러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인 경우를 보면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자,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국제통역가이드, 언론사 해외특파원, 기자, 아나운서, 출판사 편집인, 관공서나 기업체, 금융계, 창작, 항공사, 등에 취업을 하여 나름대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들 중에는 세계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신화역사공원을 준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남경계발에 취업한 학생이 있음을 그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성향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느 한 곳에 특정한 직업을 선호하기보다 세계적으로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 오키나와대학교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인 경우도

다음과 같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무역회사, 관광산업(호텔리어, 여행사 대표), 객실승무원, 매스컴(방송국, 라디오, 신문사), 등에 취업을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오키나와대학교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졸업 후 진로를 보면 영어교사라는 진로를 보면 이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오키나와대학교의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의 졸업 후 진로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이는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지 아니면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3.2 TOEFL 성적을 통해 본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을 비교함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나라의 TOEFL 성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나라들의 TOEFL 성적도 고려하면서 비교할 때 보다 신뢰성이 클 것이라 판단된다.

김중훈(2015)의 오피니언 ‘토플성적과 영어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그의 주장에 의하면 TOEFL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교육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의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TOEFL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비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이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TOEFL 성적은 영어권 국가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국가, 90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응시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유명한 대학일수록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TOEFL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의 최근의 자료를 분석하면, 2013년 한국의 인터넷 기반(iBT) TOEFL 시험 성적은 120점 만점에

6) 여기에서는 김중훈(2015)의 오피니언 ‘토플성적과 영어교육’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그에 의하면 영어권 국가는 접어들더라도 비영어권 국가인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영어교육을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85점으로 전 세계 166개 응시국가 중 58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84점으로 161개국 중 6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향상된 성적이다.

국가별로 2013년의 TOEFL 성적을 들여다보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120점 만점에 10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2012년에 이어 연속 1위의 성적을 얻었다. 이어서 덴마크가 98점으로 3위,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및 스위스가 97점으로 6위, 핀란드가 96점으로 11위, 스웨덴이 94점으로 14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98점으로 전체 3위를 보였으며, 인도(26위, 91점), 파키스탄(33위, 90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36위, 89점)의 성적이 한국보다 앞섰다. 스리랑카(58위, 85점)의 성적은 우리나라와 같았고, 방글라데시(64위, 84점), 홍콩(72위, 83점), 인도네시아와 북한(81위, 82점)이 그 뒤를 따랐다. 중국은 77점으로 108위, 일본은 70점으로 136위에 머물렀다.

TOEFL 성적이 높은 국가들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영국 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나라들이다. 이를테면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그러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제2언어의 역할을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식민지였던 역사가 없고, 그렇다고 영어가 제도적으로 특별한 위상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영어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두는 나라들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한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 결과가 바로 TOEFL 성적이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2013년 TOEFL 성적을 일본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70점으로 136위이고, 한국은 85점으로 58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 볼 때도 일본과 한국은 영어교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학생들에게 영어를 외국어로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에 따르면 네덜란드인의 90%, 스웨덴인의 86%, 덴마크인의 86%, 오스트리아인의 73%, 핀란드인의 70%, 독일인의 64%, 스위스인의 61%, 벨기에인의 59%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분명히 주목하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TOEFL 성적이 높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대체로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IMD가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1위를 한 미국은 별도로 하고,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스웨덴 5위, 독일 6위, 덴마크 9위, 한국 26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국가별 경쟁력 순위는 경제운영 성과, 정부행정 효율성, 기업경영 효율성, 발전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 평가해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비공용화 국가들이 것처럼 좋은 TOEFL 성적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영어교육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를 2학년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에서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에 노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Celce-Murcia(1991)도 주장하였듯이 언어는 빨리 배울수록 빨리 터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빨리 배우면 빨리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오늘날 사회현상으로 볼 때 우리사회에서는 그럴 일을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일본과 한국은 모두 TOEFL 환경으로 너무나 유사한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고 습득하고 있다. 양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해 보았다. 영어교육의 언어재료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또한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언어재료로 쓰이는 부분은 거의 유사하지만 배우는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주도와 유사한 일본의 오키나와대학교의 인문학부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내의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를 비교 분석하면서 양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 학문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키나와대학교의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는 실용적인 부분을 더욱 강조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를 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는 일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오키나와대학교의 영어커뮤니케이션 코스인 경우는 아직까지도 비교적 폐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양 대학교의 진로 및 취업 현상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라 확신하다.

TOEFL 성적으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은 전반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세계화에 대비하고 세계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인접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지난 과거는 잊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을 서로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 여긴다. 물론 현재에도 일부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고 고치면서 나아간다면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영어를 잘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 【參考文獻】

- 김승희(2009)「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에 대한 비교 연구」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중훈(2015.02.23.)『濟州新報』「토플성적과 영어교육」오피니언  
 다카하시 마사오 외 39명(2013)『뉴 크라운(NEW CROWN ENGLISH SERIES) 1, 2, 3』도쿄:산세이도  
 문부과학성(2008)「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도쿄:문부과학성  
 백미연(2014)「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과서 비교·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기 외 5인(2016)『MIDDLE SCHOOL ENGLISH 1, 2, 3』서울:천재교육  
 이흥수(2012)『세계화 시대 영어가 경제다』서울:English 無無, pp.336-338  
 정고운(2013)「한국과 일본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다문화내용 분석」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형륜(2005)「한국·일본·대만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숙정(2015)「한국과 일본의 영어교과서 비교 분석」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하나(2009)「한국과 일본의 영어교과서 비교」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elce-Murcia, M.(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2nd eds.). Nwbury House.  
 Graddol, D.(1997) The Future of English? London: The British Council.  
 Ellis, R.(1994) The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achru, B. B.(1986) The Power and Politics of English. World Englishes, 5(2/3), pp.121-140  
 Kachru, B. B.(1992) Teaching World Englishes. In B. B. Kachru(Ed.), The Other Tongue: English Across Cultures (2nd eds. pp.355-365).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Krashen, S, D.(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Richards, J. C.(2000)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 J. C. & Rodgers, T. S.(2014)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문투고일 :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6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6년 08월 01일  
2차 수정일 : 2016년 08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8월 15일

---

---

 <要旨>
 

---

##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 고찰

양용준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 영어교육은 교육적인 환경이나 커리큘럼적인 면에서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영어교육은 생활영어 중심의 영어회화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읽기와 쓰기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에 능하고 한국의 학생들은 말하기와 듣기에 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영어를 비롯한 일본어이든 한국어든 습득하기 위해서는 4 skills(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를 모두 갖추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밝힌 내용들을 토대로 일본과 한국의 영어교육을 함에 있어서 공유하고 서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양국의 영어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접국가로서 함께 글로벌,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양국의 교사들을 서로 교환하고 파견하는 방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되는 영어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교사들을 먼저 교류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폭넓게 허용해 준다면 분명 지금보다 한층 향상된 영어 실력을 갖춘 두 나라가 될 것이라 여긴다. (제주대학교)

## The Survey on English Education in Japan and Korea

Yang, Yong-Joon

This paper is to survey, examine and analyze the English educ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English educ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is very similar in educational situations and curriculum. However, English education is focused in living English conversation in Korea. In Japan, English education is focused in reading and writing. In general, Korean students are good at speaking and listening but Japanese student are good at reading and writing. Japan and Korea should teach English in order to be the world's citizen to their students throughly. Japan and Korea must cooperate each other in English education. Japan has to imitate Korean good English education system and Korea does, too. Japan and Korea should share their English textbooks. Then, English education of two countries is going to develop and esteem each other's system. (Jeu National University)